

한국 사회복지실천연구 경향에 관한 반성적 고찰*

김 미 옥

(전북대학교)

[요 약]

이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실천연구 경향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첫째, 그동안 한국 사회복지실천연구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을 정리하였고, 둘째, '한국 사회복지학' 학술지에 게재된(1998~2014)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사회복지학'에는 총 874 편의 연구가 17년 동안 게재되었고, 이중 사회복지실천연구가 16.6%(145편), 실천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가 40.5%(363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실천논문 145편에 대해 세부 분석결과, 연구주제별로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가 26.2%, 사회복지사가 29%, 척도개발이 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에 관한 연구는 2007년 이후 증가양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업성은 교수가 84.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실무자는 8.6%에 불과하였다. 2006년 이후 공동연구비율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독연구는 44.8%로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셋째, 사회복지실천 전공교수 8명을 개별인터뷰 한 결과, 현재 실천연구는 경계, 위기, 그리고 혼돈사이에 서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사회복지실천연구가 위기와 기회 사이에 선 것으로 평가하며, 연구환경, 실천현장, 한국적 사회복지학의 재구성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주제어 : 사회복지실천연구, 사회복지학, 연구 경향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에 사회복지학이 학문으로 시작된 것은 멀지 않은 일이다.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로 출발한 이후 강남대(1953년), 서울대(1959년), 중앙대(1962년) 등이 사회복지학과를 개

*이 연구는 2015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의 춘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한 '사회복지 미시적 실천연구의 성과와 과제'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설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시작된 아동구호사업이 주를 이루었던 당시에, 사회복지교육은 대학 내에서만 외국지식을 답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김연옥, 1998: 85-86). 이후 사회변동과 사회적 수요 증가로 사회복지학과가 신설되면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대학원 과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한국 사회복지학은 학문이 태동된 반세기를 좀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양적 팽창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한국적 사회복지, 사회복지학의 정체성과 토착화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근간에는 사회복지교육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이 논의되고 있다. 일련의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교육 등에 대한 문제 및 대안 탐색은 꾸준히 있어 왔으나, 연구측면에서 사회복지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조망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김연옥, 1998: 오정수, 2002). 특히, 사회복지실천연구는 18편의 실천관련논문의 효과성 연구경향을 분석한 양옥경(2000)의 연구가 있을 뿐이어서, 2000년 이후 실천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은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 하면 흔히 떠오르는 임상 혹은 미시적 접근이 있고, 최근에는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사회복지실천을 규정하기도 한다. 관련하여 황성철(1998: 235-236)은 미시적 실천(micro practice)이 개인, 집단, 가족을 대상으로 클라이언트 체계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사회복지사의 원조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시적 실천은 클라이언트와 대면활동을 기초로 클라이언트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상담과 치료의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체계이기 때문에 임상적 실천(clinical social work practice)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한편, 양옥경 외(2010)는 사회복지실천을 사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인, 소집단, 가족, 또는 지역사회의 문제 및 욕구에 권한부여적(empowering) 문제해결접근방법(problem-solving method)으로 개입하는 종합적(generic) 전문 활동(professional activity)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의 사회복지실천 현장은 개인, 집단, 가족, 지역사회가 어우러지면서, 거시와 미시가 넘나드는 탈 경계의 모습이 관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옥경 외(2010)의 정의에 기반을 두어, 미시적 실천이라는 용어가 아닌 사회복지실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실천연구라 함은 클라이언트와 대면 활동에 초점을 둔 임상적 실천연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역사회관련실천 활동까지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이에 사회복지실천연구에 개인, 집단, 지역사회관련 연구 뿐 아니라 실천과 관련된 사회복지사 및 척도개발 등의 연구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사회복지실천 전공 교수와의 인터뷰에서도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복지실천 연구에서 '발현된', 그리고 '내재된' 지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실천연구의 발전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회복지실천 연구와 관련된 '발현된' 현상 이해는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논문(1998~2014) 874편 중 508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내재된' 현상 이해는 게재된 논문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사회복지실천 전공 교수 8명을 인터뷰하여 사회복지실천연구와 관련된 다각도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실천연구의 당면 현실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실천연구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향후 발전적인 대응방안 모색에 그 함의가 있다.

2. 한국 사회복지실천연구와 관련된 비판적 논의들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에 대한 반성과 한국적 적용의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지향의 모색은 1980년에 와서야 시작되었다(최균, 1995: 1).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한국에 사회복지학이 도입된 이후 거의 40년이 지난 시점에서이다. 이 시기 전까지는 서구의 실천이론이나 실천모델을 소개하는 형태의 연구가 주였으며, 1990년대에 와서야 우리나라 현실에 기초한 임상 연구가 시작되었다(김연옥, 1998: 93). 이에 대해 이혜경(1993)은 한국의 사회사업은 현상이 없는 대학 내에서의 학문으로만 존재했으며, 오랫동안 서구, 주로 미국이론을 답습했다고 지적하였다. 1980년대 이후 복지가 국책으로 강조되고, 1990년대 말 사회복지전문요원이란 명칭 확대, 복지관의 신설 등으로 실천학문으로서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김연옥, 1994: 204).

1990년대 중반에 한국사회복지학회에서 학술대회(1995)의 주제로 ‘한국사회복지학 연구의 분석과 과제’를 선정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당시 발표자인 최균(1995: 13)은 한국적 사회복지학 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사회문화적 토대가 상이한 학문의 이입에 따른 현실적합성 정립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후 김연옥(1998)은 1979년에서 1997년까지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경험논문 125편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실천성은 아직 확보되지 못하고 이론화 과정도 미비하다고 평가하였다. 그 이유로는 연구결과의 단절과 연구주제들의 집락형성 미비를 들었으며,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의 경험연구 단계는 형상 서술적 단계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양적연구의 압도적 우세와 단순기술통계로의 편향성이 지적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특정한 연구방법론, 특성 분석기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연옥은 인식론적, 방법론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유연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 당시만 해도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은 단 3편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연옥, 1998). 홍경준(1998: 43) 역시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에 나타나는 연구방법의 선택적 편향성, 재검증과 반증의 결여를 지적하면서, 연구자들이 연구방법을 선택할 때 연구주제나 이론적 모델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익숙함 혹은 시대적 유행에 편승하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말 그대로 연구대상을 적절하게 파악할 방법이기 에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산출해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연구방법에 대해 잘 알아야 하지만, 그것이 연구대상 및 이론체계와 잘 맞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0년에 들어와서 비판사회복지학회의 학술대회(2002)에서 발표된 오정수(2002: 36)의 연구에서는 양적연구방법의 사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연구방법의 개발과 적용이 충분하게 성숙한 단계가 아니고, 거시와 미시간 연구방법론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으며, 실증주의와 비실증주의 간의 대립도 극명하게 노출되지 않았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양적방법에의 지나친 편향과 질적 방법의 미성숙과 왜곡된 연구문화, 상당한 시간의 현장 또는 현실참여가 요구되는 질적연구에 대한 투자와 헌신 부족, 단기간 내에 적용하기 쉬운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성급하게 결과를 산출하려고 하는

연구 태도, 고급통계방법을 활용한 양적연구만을 과학적이라고 인식하는 왜곡된 연구문화 등으로 인하여 한국의 사회복지학계는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편향된 연구경향을 보인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또한, 홍경준(2002: 15)은 연구주제의 범위는 급격하게 넓어지는 반면, 활용하는 연구방법은 갈수록 획일화됨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양적연구방법에의 의존이라는 문제와 연계해 설명하면서, 양적연구방법의 활용이 이미 학문공동체에 익숙해져 결연한 일탈이 시도되지 않는 한 그 관성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중·후반으로 오면서, 학문후속세대에 의해 이러한 관성으로부터의 일탈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한국사회복지학의 연구방법이 지나치게 양적으로 편향되어 있음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면서, 2003년에는 사회복지실천연구에서 질적연구방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이 강조되었고, 이에 질적연구방법은 사회복지실천과정에 통찰력을 증진해주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강철희·김미옥, 2003). 2005년을 기점으로 질적연구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이며(김미옥, 2007), 2006년에는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가 만들어지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

한편, 2000년에 오면서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도, 소수지만 나타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Fischer(1973)가 사회복지실천은 효과가 없다고 비판한 이래 ‘과연 사회복지실천은 효과적이거나는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열띤 논쟁이 있었던 반면, 국내에서는 실천의 효과성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매우 부족하였다.

우선, 이상균(2000: 133-137)은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 16개에 대한 메타분석을 한 결과,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이 73.7%의 효과율을 보여 개입활동이 효과적이었음을 제시하고 있다²⁾. 사회복지실천 및 연구 활동의 주된 경향으로 첫째, 이론적 부재와 기술적 절충주의, 즉 상이한 목적과 대상을 갖는 프로그램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결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입증되어도 프로그램 수행 그 자체 이외에는 효과성의 주요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문제를 제시한다. 둘째, 효과성을 증명하는 산물연구의 결핍을 제시하며, 이는 실무자의 지식부족, 결과(outcome)보다는 산출(output)을 중시하는 사회복지환경의 압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경준(1998) 역시 한국적 현실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이론과 실천모형의 개발에 필수적인 재검증과 반증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실증적 연구결

1) 미국의 사회복지실천 효과성에 대한 논쟁은 Fisher(1973: 5-20)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연구에서 Fisher는 개별사회사업은 그 효과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Wood(1978: 437-459) 역시 22개 조사연구의 메타분석에서 전문가의 실천 활동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Reid와 Hanahan(1982: 328-340)이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이 입증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이후 지식의 본질과 범위에 대한 인식론과 효과성을 입증하는 조사방법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쟁은 효과적인 실천방법에 대한 강조, 실천과 조사연구의 접목을 위한 노력 등으로 사회복지실천을 과학화하는데 공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황성철, 1998: 218-221).

2) 2008년 이후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실천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정신장애인가족교육프로그램의 효과, 알코올 의존자를 위한 단주프로그램의 효과, 우울증 개선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연구들이 있으며, 이 외에도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등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도 소수지만 제시되고 있다.

과의 파편화에 따른 개입방법의 비합리적 선택 경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1차 연구들이 발표되지만 실천현장에서는 그 결과들이 종합되지 못하고 파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 결과, 사회복지사들이 선택하고 적용하는 개입방법이 즉흥적이거나 흥미위주의 일회적이고 이벤트적인 프로그램에 머무르거나 이론적 근거가 부족한 프로그램이 되는 경향이 높아지는 위험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양옥경(2000)은 1979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사회복지학을 비롯한 13개 사회복지관련 전문 학술지에 개간된 임상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기간 동안 효과성 연구는 총 18편에 불과했으며, 전체 출현율 1.28%로 국내 유사분야나 국외 사회복지학계의 출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나마 일부 연구에서는 방법론적 오류가 관찰되어 그 결과를 완전히 인정하기는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실천학문으로서 사회복지학의 위상을 위협하는 결과로서, 임상사회복지학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서는 활발한 연구 활동, 실무 현장과의 공조체계 확립, 이론 및 방법론 개발, 교육 및 재교육 강화, 인접학문과의 공동연구 등을 제안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 서구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증거기반실천(evidence-based practice)에 대한 한국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탐색 연구들이 나타났다(공계순·서인해, 2006). 이후 조사에 기반을 두어 만들어지는 증거기반 지식의 전파활동이 실천 활동을 보다 과학화시킨다는 보고가 제기되며³⁾, 증거기반실천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공계순·서인해, 2006; 김유진, 2007; 서인해·공계순, 2014). 미국의 경우는 1990년대 중반부터 증거기반 프로그램(evidence-based program)을 실천현장에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예컨대, 2003년도 미국에서 실시되는 가족복지관련 프로그램 중 10%, 아동관련프로그램 20~25%가 증거기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umpfer et al., 2003). 이러한 증거기반활동은 사회복지프로그램 관련 활동의 수준과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효과성이 입증된 프로그램을 다기관 및 지역사회에 전파함으로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효과성이 입증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따른 윤리적 의무를 지킬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서인해·공계순, 2014: 55-57).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된 프로그램을 타 지역 및 타기 관으로 전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 즉, 전파된 프로그램이 지역의 가치와 문화에 맞지 않으며, 효과성이 있다고 알려진 프로그램들이 지역에서 수행되는 과정에서 효과성이 사라지면서, 프로그램 상자 속의 프로그램 구조와 활동에 대한 증거확보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Aos et al., 2006; Bumharger and Perkins, 2008). 따라서 서인해와 공계순(2014)은 증거기반활동의 한국 방향성으로 통합적인 접근, 증거확보에 대한 보다 적극적 관심과 지원활동,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증거수준의 적용, 현장의 우수한 프로그램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활동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증거기반실천의 강조에 대한 영향으로 현장에서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증가하고 있다. 관련하여 양적 평가가 어려운 사회복지실천 영역에 대한 질적 평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질적연구방법의 확산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

3)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증거기반 인증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2014년부터는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증거기반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서인해·공계순, 2014).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장연진과 정선옥(2014)은 2000년부터 2012년 학술지 논문 검색을 통해 선정된 사회복지실천 분야의 프로그램 질적 평가 연구 논문 70여 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009년 이후 질적 평가연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질적 평가의 성숙을 위해서는 평가 설계의 충실성이 요청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를 살펴볼 때, 한국적 사회복지학과 실천연구에 대해서는 학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000년 후반에 와서 실천연구의 동향이 어떠한지는 연구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만 사회복지임상실천 연구의 효과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실천 연구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3. 한국 사회복지실천연구 분석 :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논문 (1998~2014)을 중심으로

1) 한국 사회복지학 관련 학회 및 학술지 분포 현황

사회복지학과 관련된 학술 동향을 살펴보면, 1957년에 한국사회복지학회가 창립되었고(창립 당시는 한국사회사업학회), 1979년에 이르러 <사회사업학회지>가 창간되었다. 이후 1986년 제6호부터는 <사회복지학회지>로 개칭하였고, 1985년 한국사회복지학회라는 동일한 명칭의 학회가 발족하여 <한국사회복지학> 1, 2호를 발간하였다. 1987년에는 2개의 학회통합과 동시에 학회지도 통합하여 <한국사회복지학>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본인 11호가 발간되었다. 이후 연 2회 발간되는 형태를 유지하다가 1995년부터 연 3회를 발간하였고, 2000년부터 연 4회 발간으로 외형적 성장이 가속화되었다(김연옥, 1998: 88).

<표 1>을 보면, 2015년 6월 현재, 한국 사회복지학계는 총 20개의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등재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많은 사회복지관련 학술지가 있다. 첫 학회지가 1979년에 출간되었음을 고려하면, 36년 만에 매우 빠른 양적 성장을 한 것이다⁴⁾. 이를 발행기관으로 구분해보면, 학회 17개, 협의회 1개, 연구소 1개 등으로 구성되어, 사회복지 분야별 학회로 그 활동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창간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970년대 1개(1979), 1980년대 1개, 1990년대 11개, 2000년대 7개로서, 2000년에 와서 한국 사회복지학은 양적 및 질적으로 학문적 확장이 구체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즉, 1990년대에는 아동, 청소년, 노인, 가족 등 분야별 학술지가 등장하였고,

4) 한국연구재단에서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사회복지’라는 주제어를 입력하면 총 36개의 학술지가 검색된다. ‘복지’라는 주제어를 입력하면 총 73개의 학술지가 검색되고, 이 중 사회과학 분야로 좁혀 재검색하면 42개이다. 이를 다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로 구분하면, 등재지 14개(총 18개가 검색되나, 이 중 교육학 1개, 심리과학 1개, 사회과학일반 2개로 중분류된 4개를 제외하고 사회복지학으로 중분류된 것만 보면 총 14개의 등재학술지, 등재후보지 6개(총 7개 검색되나, 이 중 1개는 교육학)로, 20개의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에 와서는 영문학술지 뿐 아니라 연구방법론이 주축이 되는 학회가 생기는 등 학회의 다양화 및 학술논문의 전문화, 다각화 현상도 나타난다. 이는 다양한 학회의 출현, 그리고 학술연구의 양적 확대 측면에서 한국사회복지학의 발전적 성과 중 하나로 평가할만하다. 사회복지실천현장의 확대, 사회복지학과와 증설 등 사회복지학의 외적 조건의 발전(김연옥, 1998: 86; 최균, 1995) 뿐 아니라 학회와 학술지의 성장은 그만큼 한국형 사회복지학에 대한 욕구와 과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한국 사회복지학관련 학회 및 학술지 분포 현황

연도	학술지명	발행기관	창간년도	비고
1970년대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회	1979	등재
1980년대	사회복지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1989	등재
1990년대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회	1992	등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사회복지연구소연세대학교	1993	등재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994	등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1994	등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1995	등재
	비판사회정책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1996	등재
	한국가족복지학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1997	등재
	학교사회복지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1998	등재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1998	등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999	등재
2000년대	청소년복지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999	등재
	아시아아동복지연구	대한아동복지학회	2003	등재후보
	한국장애인복지학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05	등재
	한국사회복지교육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05	등재후보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등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2007	등재후보
	한국군사회복지학	한국군사회복지학회	2008	등재후보
미래사회복지연구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2010	등재후보	

2) 사회복지실천관련 학술논문 분포 현황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학술지 중 ‘한국사회복지학’에 나타난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사회복지학’을 선택한 것은 1979년 창간된 가장 오래된 학회지라는 점, 사회복지분야를 총망라하는 점(정책 및 임상, 다양한 분야 포괄), 선행연구와의 비교가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시간적으로는 1998년부터 2014년까지 17년간의 사회복지실천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⁵⁾. 분석결과 ‘한국사회복지학’에 1998년부터 2014년 동안 총 87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본 연구에서 1998년을 기점으로 선택한 것은 선행연구(김연옥, 1998)에서 1979년 창간호부터 1997년에 이르는 ‘한국사회복지학’의 연구경향을 분석하고 있어, 선행연구와 비교 등에 용이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000년이 되면서 매해 3회 발간횟수가 4회로 증가하였다. 이 중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연구는 두 가지로 다시 구분하였다. 하나는 사회복지실천연구(C)로, 프로그램 개발, 효과검증 등 실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연구들로서 총 145편으로 16.6%로 나타났다. 한편, 변인과의 관계검증, 실천과 관련된 현상 이해 등의 사회복지실천관련 경험적 연구(B)는 363편으로 40.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둘을 합하면, 한국 사회복지학에 게재된 논문들 중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연구들은 전체의 57.1%로 나타났으나, 실천과 직접관련이 있는 논문들의 비중은 16.6%로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2>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사회복지실천관련 연구의 분포

단위: 편(%)

간행년도(호)	총수록 논문(A)	사회복지실천관련 경험적 연구(B)		사회복지실천연구(C)	
		논문수(B)	비율(B/A×100)%	논문수(C)	비율(C/A×100)%
1998(34,35,36)	39	14	35.9	5	12.8
1999(37,38,39)	41	17	41.5	6	14.6
2000(40,41,42,43)	42	19	45.2	7	16.7
2001(44,45,46,47)	53	21	39.6	11	20.8
2002(48,49,50,51)	48	16	33.3	9	18.8
2003(52,53,54,55)	52	21	40.4	8	15.4
2004(56-1,2,3,4)	54	20	37.0	15	27.8
2005(57-1,2,3,4)	58	15	25.9	6	10.3
2006(58-1,2,3,4)	59	24	40.7	9	15.3
2007(59-1,2,3,4)	53	15	28.3	12	22.6
2008(60-1,2,3,4)	42	21	50.0	5	19.0
2009(61-1,2,3,4)	59	30	50.8	8	13.6
2010(62-1,2,3,4)	63	31	49.2	11	17.5
2011(63-1,2,3,4)	52	25	48.1	6	11.5
2012(64-1,2,3,4)	54	29	53.7	4	7.4
2013(65-1,2,3,4)	55	24	43.6	12	21.8
2014(66-1,2,3,4)	50	21	42.0	11	22.0
계	874	363	40.5	145	16.6

<주> B = 실천 관련 경험적 연구로서, 변인들 간의 검증을 한 양적연구 및 실천관련 질적연구를 포함함)

C = 실천 연구는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척도개발, 모델적용이나 사례연구,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실천과 직접 관련된 것을 의미함)

- 6) 분석과정에서 이 연구들을 포함해야 할지는 매우 고민스러운 부분 중 하나였다. 그러나 변인들 간의 관계 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실천프로그램 개발이나 개입의 기초자료로 기여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여 '실천관련논문'이라 명명하고 실천연구와 구분하여 분석한 후 제시하였다.
- 7) 필자가 사회복지실천연구에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척도개발, 모델적용이나 사례연구,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실천과 '직접' 관련된 것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은 선행연구에 근거한(김연옥, 1998; 양옥경, 2000) 것이다. 이와 구분하여 최근에 많이 연구되는 고급통계를 활용한 변인들 간의 관계 검증 연구들, 질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사회복지실천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험적 연구들을 사회복지실천관련 경험적 연구(B)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이러한 구분없이 프

<표 3>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사회복지실천관련 연구의 연구방법 추이

구분	문헌연구(a) (a/f×100%)		양적연구(b) (a/f×100%)		질적연구(c) (a/f×100%)		혼합방법 연구(d) (a/f×100%)		기타(e) (a/f×100%)		계(f) (%)	
	B	C	B	C	B	C	B	C	B	C	B	c
1998 ~2000	4 (8.0)	2 (11.1)	43 (86.0)	9 (50.0)	1 (2.0)	2 (11.1)	2 (4.0)	5 (27.8)	0	0	50 (100)	18 (100)
2001 ~2003	2 (3.4)	0	45 (77.6)	16 (57.1)	6 (10.3)	4 (14.3)	3 (5.2)	8 (28.6)	2 (3.4)	0	58 (100)	28 (100)
2004 ~2006	3 (5.1)	4 (13.3)	41 (69.5)	18 (60.0)	13 (22.0)	5 (16.7)	1 (1.7)	3 (10)	1 (1.7)	0	59 (100)	30 (100)
2007 ~2009	1 (1.5)	0	40 (60.6)	15 (60.0)	23 (34.8)	4 (16.0)	1 (1.5)	4 (16.0)	1 (1.5)	2 (8.0)	66 (100)	25 (100)
2010 ~2012	0	0	44 (51.7)	12 (57.2)	38 (44.7)	5 (23.8)	2 (2.4)	2 (9.5)	1 (1.2)	2 (9.5)	85 (100)	21 (100)
2013 ~2014	0	3 (13.1)	26 (57.8)	13 (56.5)	18 (40.0)	5 (21.7)	1 (2.2)	2 (8.7)	0	0	45 (100)	23 (100)
소계	10 (2.7)	9 (6.2)	239 (65.8)	83 (57.2)	99 (27.3)	25 (17.2)	10 (2.8)	24 (16.6)	5 (1.4)	4 (2.8)	363 (100)	145 (100)
총계	19(3.7)		322(63.4)		124(24.4)		34(6.7)		9(1.8)		508(100)	

* B와 C의 구분은 위 <표 2>의 분류에 근거함(B=사회복지실천관련 경험적 연구, C=사회복지실천연구).
 * B에서 기타는 연결망분석, Q방법론, 자아중심적 연결망 분석등, C에서 기타는 Q방법론 등이 포함됨
 * C에서 혼합방법연구에는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에서 면접 및 평가를 분석한 경우, 척도개발을 위해 인터뷰를 진행한 경우 등이 다수를 차지함.

사회복지실천 관련 연구들의 연구방법 활용 경향성을 살펴보면(<표 3>),⁸⁾ 사회복지실천관련 논문의 전체 분포는 양적연구가 63.4%, 질적연구가 24.4%, 혼합방법연구가 6.7%, 문헌연구가 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천관련 경험적연구(B)는 총 363편으로 양적연구 65.8%, 질적연구 27.3%, 혼합방법연구 2.8%, 문헌연구 2.7% 등의 순이었다. 변인들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양적연구가 매우 큰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양적연구는 1998년 이후 다소 감소추세로 나타났으며, 2013년에 와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질적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2010년 이후에 질적연구가 전체의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실천관련 연구에서 질적연구의 활용이 매우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문헌연구는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사회복지실천연구(C)는 총 145편으로 양적연구

로그그램개발 등의 실천 논문과 같은 범주 내에 포함하는 것이 실천연구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함으로써 현실보다 더 많은 실천연구들이 이루어진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의 지형을 파악하되, 실천연구의 경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이러한 이원화된 명명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다만, 필자의 역량 부족으로, 이 양자를 구분하는 명확한 용어를 찾기 어려워서 위와 같은 형태로 제시하였음을 밝혀둔다.

8) 본 연구에서 분석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17년 동안의 연구 변화추이를 보는 기간의 측면과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속성을 고려하여, 5년보다는 3년이 전체의 동향 파악에 유리하다고 보았다. 다만, 이 연구를 하는 분석시점이 2015년 상반기여서 2013~2014년의 경우 타 분석연도와 달리 2년 기간의 동향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57.2%, 질적연구 17.2%, 혼합방법연구 16.6%, 문헌연구 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이후 질적연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실천관련 연구(B)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비교해서는 소폭의 변화양상을 보여주며, 혼합방법론의 활용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관련 연구들을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에는 양적연구방법 활용이 감소되는 반면, 질적연구방법의 활용이 증가하는 양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2013~2014년의 경우에는 다른 기간과 달리 2년이라는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질적연구방법의 강세가 뚜렷하였다. 정리하면, 1998년 이후 사회복지실천 관련 연구는 경험적 연구 확대, 질적연구의 뚜렷한 증가 등의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4> 사회복지실천연구의 연구방법론 활용 추이: 양적연구⁹⁾

구분		1998 ~2000	2001 ~2003	2004 ~2006	2007 ~2009	2010 ~2012	2013 ~2014	계
기술통계	B	1(2.2)	3(6.3)	2(4.8)	0	1(2.2)	0	7(2.8)
	C	2(14.3)	0	0	0	0	0	2(1.9)
카이 스퀘어	B	0	2(4.2)	0	0	2(4.3)	0	4(1.6)
	C	0	0	0	0	0	0	0
t검증	B	3(6.7)	1(2.1)	0	1(2.4)	2(4.3)	0	7(2.8)
	C	4(28.6)	4(16.6)	4(19.0)	3(15.8)	4(28.6)	1(6.7)	20(18.7)
상관분석	B	4(8.9)	2(4.2)	0	1(2.4)	1(2.2)	0	8(3.2)
	C	0	0	1(4.8)	2(10.5)	3(21.4)	1(6.7)	7(6.5)
분산분석	B	5(11.1)	4(8.3)	2(4.8)	2(4.9)	3(6.5)	1(3.7)	17(6.8)
	C	2(14.3)	1(4.2)	2(9.5)	2(10.5)	1(7.1)	0	8(7.5)
비모수 검증	B	0	0	0	1(2.4)	0	0	1(0.4)
	C	4(28.6)	9(37.5)	4(19.0)	1(5.3)	0	2(13.3)	20(18.7)
회귀분석	B	24(53.3)	29(60.4)	26(61.9)	19(46.3)	15(32.6)	9(33.3)	122(49.0)
	C	0	6(25.0)	5(23.8)	2(10.5)	0	2(13.3)	15(14.0)
다변량 분산분석	B	2(4.4)	0	1(2.4)	0	0	0	3(1.2)
	C	0	1(4.2)	0	1(5.3)	0	1(6.7)	3(2.8)
경로분석	B	1(2.2)	2(4.2)	4(9.5)	0	3(6.5)	1(3.7)	11(4.4)
	C	0	0	1(4.8)	0	0	0	1(0.9)
구조 방정식	B	5(11.1)	4(8.3)	6(14.3)	9(22.0)	11(23.9)	11(40.7)	46(18.5)
	C	0	1(4.2)	0	1(5.3)	2(14.3)	3(20.0)	7(6.5)
다층분석 (HLM)	B	0	0	0	1(2.4)	1	1(3.7)	3(1.2)
	C	0	0	0	2(10.5)	0	1(6.7)	3(2.8)
종단분석	B	0	0	1(2.4)	1(2.4)	5(10.9)	1(3.7)	8(3.2)
	C	0	0	0	0	0	0	0
기타	B	0	1(2.1)	0	6(14.6)	2(4.3)	3(11.1)	12(4.8)
	C	2(14.3)	2(8.3)	4(19.1)	5(26.3)	4(28.6)	4(26.7)	21(19.6)
총계(B)		45(100)	48(100)	42(100)	41(100)	46(100)	27(100)	249(100)
총계(C)		14(100)	24(100)	21(100)	19(100)	14(100)	15(100)	107(100)

* B와 C의 구분은 위 <표 2>의 분류에 근거한 것임(B=사회복지실천관련연구, C=사회복지실천연구)

사회복지실천관련 양적연구들(B)에서 사용한 연구방법론의 경향을 살펴보면(<표 4>), 회귀분석이

9) 통계방법의 구분은 통계관련 교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조방정식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3년~2014년에는 전체 양적논문의 40.7%로 나타났으며, 다층 분석이나 중단분석도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고급통계방법 지향성은 2007년 이후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한편 사회복지실천연구들(C)은 2000년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다양한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사회복지실천연구의 연구방법론 활용 추이: 질적연구¹⁰⁾

구분		1998 ~2000	2001 ~2003	2004 ~2006	2007 ~2009	2010 ~2012	2013 ~2014	계
내용분석	B	2(66.7)	3(33.3)	2(14.3)	3(12.5)	7(17.5)	3(15.8)	20(18.3)
	C	6(85.7)	9(75.0)	6(75.0)	4(50.0)	4(57.1)	5(71.4)	34(69.4)
현상학	B	0	1(11.1)	4(28.6)	5(20.8)	8(20.0)	5(26.3)	23(21.1)
	C	0	0	0	1(12.5)	0	1(14.3)	2(4.1)
근거이론	B	0	3(33.3)	4(28.6)	3(12.5)	9(22.5)	5(26.3)	24(22.0)
	C	0	1(8.3)	2(25.0)	0	1(14.3)	0	4(8.2)
사례연구	B	0	0	1(7.1)	1(4.2)	6(15.0)	2(10.5)	10(9.2)
	C	1(14.3)	0	0	1(12.5)	2(28.6)	1(14.3)	5(10.2)
문화기술지	B	0	0	1(7.1)	3(12.5)	1(2.5)	0	5(4.6)
	C	0	0	0	0	0	0	0
생애사	B	0	0	0	6(25.0)	6(15.0)	1(5.3)	13(11.9)
	C	0	0	0	0	0	0	0
기타	B	1(33.3)	2(22.2)	2(14.3)	3(12.5)	3(7.5)	3(15.8)	14(12.8)
	C	0	2(16.7)	0	2(25.0)	0	0	4(8.2)
B총계		3(100)	9(100)	14(100)	24(100)	40(100)	19(100)	109(100)
C총계		7(100)	12(100)	8(100)	8(100)	7(100)	7(100)	49(100)

* B와 C의 구분은 위 <표 2>의 분류에 근거한 것임(B=사회복지실천관련연구, C=사회복지실천연구)

<표 5>에 나타난 질적연구방법의 활용경향을 보면, 특정연구 전통을 활용하지 않고 내용 분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근거이론, 현상학, 생애사, 사례연구 등의 방법이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0년 초반에 활용되기 시작한 근거이론은 거의 20%대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활용되는 연구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는 현상학의 활용도가 높았으며, 2004년 이후 다양한 질적연구방법들의 사용이 활발해진 양상으로 나타났다.

3) 사회복지실천논문의 특성

사회복지실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사회복지실천연구(C) 145편을 중심으로 이들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성을 연구주제, 학제성과 협업성, 연구단위 및 대상 분포¹¹⁾로

10) 질적연구 구분은 질적연구관련 교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11)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실천연구의 특성을 연구주제, 학제성과 협업성, 연구단위 및 대상 분포로 구분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선행연구(김연옥, 1998)와의 비교를 위함이다. 다만, 연구단위 및 연구대상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연구주제

연구주제별 특성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가 26.2%,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4.8%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사(관련 종사자 포함)에 대한 연구들도 29%로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으며, 각종 척도개발과 관련된 연구도 20.0%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 다양한 주제를 가진 실천 일반에 관련된 논문도 20.0%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이후 효과성 검증 연구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만을 제시한 연구는 2010년 이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엄격한 연구방법론을 강조하는 학술지 심사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주었으며,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도 2007년~2009년에 가장 많은 연구들이 시도되었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도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2014년의 경우 2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변화 동향이 상당히 큼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해준다. 관련하여 2013년 이후 실천연구에서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는 양상은 사회복지실천의 전달 주체로서 종사자의 역할 및 기능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6〉 연구주제별 분포

구분	실천일반(a)	프로그램 개발(b)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c)	사회복지사(관련종사자 포함)(d)	척도개발(e)	계(%)
1998~2000	4(22.2)	3(16.7)	8(44.4)	1(5.6)	2(11.1)	18(100)
2001~2003	8(28.6)	2(7.1)	11(39.3)	5(17.9)	2(7.1)	28(100)
2004~2006	6(20.0)	1(5.0)	8(26.7)	11(36.7)	4(13.3)	30(100)
2007~2009	2(8.0)	1(4.0)	5(20.0)	11(44.0)	6(24.0)	25(100)
2010~2012	4(19.0)	0	3(14.3)	5(23.9)	9(42.9)	21(100)
2013~2014	5(21.7)	0	3(13.1)	9(39.1)	6(26.1)	23(100)
계	29(20.0)	7(4.8)	38(26.2)	42(29.0)	29(20.0)	145(100)

* 프로그램 개발은 효과 검증을 하지는 않고 개발만 한 것임

(2) 학제성과 협업성

사회복지실천연구의 학제성과 협업성 평가를 위해 연구자의 직책 및 전공분야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연구자직책은 실무자 8.6%, 대학원생 1.8%로 나타났으며 교수 84.6%, 연구원 5.0% 등 학자 중심의 연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연옥(1998)의 연구에서 사회복지현장 실무자 참여도 6%에 비해서는 증가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정도가 미미하여 사회복지현장 실무자의 참여는 여전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 대학원생과 실무자의 비율이 다

의 경우 선행연구에는 없으나,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실천을 통합적 방법론 등장 이후의 정의(양옥경 외, 2010)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연구단위의 분포 등도 살펴보았다.

소 상승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7> 연구자의 직책과 전공분야

구분	연구자직책					전공분야		
	교수(a) (a/e×100)%	연구원(b) (b/e×100)%	대학원생(c) (c/e×100)%	실무자(d) (d/e×100)%	계(e)(%)	사회복지(f) (f/h×100)%	기타(g) (g/h×100)%	계(h)
1998~2000	22(84.6)	2(7.7)	0	2(7.7)	26(100)	26(100)	0	26(100)
2001~2003	42(90.3)	4(8.7)	0	0	46(100)	39(84.8)	7(15.2)	46(100)
2004~2006	37(82.2)	1(2.2)	1(2.2)	6(13.3)	45(100)	45(100)	0	45(100)
2007~2009	42(79.2)	2(3.8)	2(3.8)	7(13.2)	53(100)	53(100)	0	53(100)
2010~2012	45(86.6)	1(1.9)	0	6(11.5)	52(100)	52(100)	0	52(100)
2013~2014	49(84.5)	4(6.9)	2(3.4)	3(5.2)	58(100)	58(100)	0	58(100)
계	237(84.6)	14(5.0)	5(1.8)	24(8.6)	280(100)	273(97.5)	7(2.5)	280(100)

* 연구자의 직책은 연구자가 논문에 밝힌 직책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기타에는 사회복지개발 대학원, 인간생활환경학과, 생활과학부, 의과대학, 식품영양, 외식산업, 아동학과 등이었음
* 공동연구자 수에 따라 분석하여 총수에 차이 있음

전공분야와 관련해서 김연옥(1998)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가 96.4%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97.5%로 조사되어 오히려 협업의 정도는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결과는 1개의 학술지를 분석한 사회복지실천연구에 국한하고 있어, 사회복지전체의 경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협업성은 사회복지실천연구들이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 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사회복지학 내에서의 협업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의 단독 및 공동연구의 변화(<표 8>)와 관련해서는 단독연구가 44.8%로 가장 많았으며 2인 연구 32.4%, 3인 연구 13.1% 등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후 공동연구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는 반면, 단독연구는 감소하는 추세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연옥(1998)의 연구에서 단독연구가 77.6%, 2인 연구 15.2% 등으로 나타난 것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공동연구의 증가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표 8> 단독/공동연구 변화

구분	단독(a) (a/f×100%)	2인 공동연구(b) (a/f×100%)	3인 공동연구(c) (a/f×100%)	4인 공동연구(d) (a/f×100%)	5인 이상 공동연구(e) (a/f×100%)	계(f)(%)
1998~2000	11(61.1)	6(33.3)	1(5.6)	0	0	18(100)
2001~2003	16(57.2)	6(21.4)	6(21.4)	0	0	28(100)
2004~2006	20(66.7)	7(23.3)	2(6.7)	0	1(3.3)	30(100)
2007~2009	9(36.0)	9(36.0)	3(12.0)	3(12.0)	1(4.0)	25(100)
2010~2012	7(33.3)	5(23.8)	4(19.1)	2(9.5)	3(14.3)	21(100)
2013~2014	2(8.7)	14(60.9)	3(13.0)	1(4.4)	3(13.0)	23(100)
계	65(44.8)	47(32.4)	19(13.1)	6(4.1)	8(5.5)	145(100)

(3) 연구단위 및 대상 분포

연구단위별 분석에서는 개인이 64.1%, 가족 및 집단이 26.2%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는 2.8%에 불과하였다. 연구대상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사 46.2%,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각각 11.7%로 많았으며, 노인 6.9%, 가족 6.2%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실천연구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가 현저히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여전히 개인에 대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연구단위 및 대상 분포

구분	연구단위				연구대상							계(j) (%)
	개인(a) (a/1×100%)	집단 (가족) (b/1×100%)	지역사 회 (c) (c/1×100%)	기타 (d) (d/1×100%)	아동청소년 (e) (e/1×100%)	노인(f) (f/1×100%)	여성 (g) (g/1×100%)	장애인 (h) (h/1×100%)	가족(i) (i/1×100%)	사회복 지사등(j) (j/1×100%)	기타(k) (k/1×100%)	
1998 ~2000	7 (38.9)	8(1) (44.4)	0	3 (16.7)	3 (16.7)	1 (5.6)	3 (16.7)	4 (22.2)	0	4 (22.2)	3 (16.6)	18 (100)
2001 ~2005	26 (53.1)	20(6) (40.8)	1 (2.0)	2 (4.1)	7 (14.3)	5 (10.2)	1 (2.0)	6 (12.2)	7 (14.3)	16 (32.7)	7 (14.3)	49 (100)
2006 ~2010	33 (73.3)	7(2) (15.6)	2 (4.4)	3 (6.7)	3 (6.7)	3 (6.7)	1 (2.2)	3 (6.7)	2 (4.4)	26 (57.8)	7 (15.5)	45 (100)
2011 ~2014	27 (81.8)	3 (9.1)	1 (3.0)	2 (6.1)	4 (12.1)	1 (3.0)	1 (3.0)	4 (12.1)	0	21 (63.6)	2 (6.2)	33 (100)
계	93 (64.1)	38(9) (26.2)	4 (2.8)	10 (6.9)	17 (11.7)	10 (6.9)	6 (4.1)	17 (11.7)	9 (6.2)	67 (46.2)	19 (13.2)	145 (100)

* 연구 단위 기타에는 문헌 등이 포함됨.

* 연구 대상 기타에는 실직자, 청소년의 부모, 탈북자, 사회복지실천, 약물남용자, 자활참여자, 복지관 이용자, 실습지도 교수 등이 포함됨.

4. 사회복지실천 전공 교수의 현실진단¹²⁾

사회복지실천 연구자들은 당면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이를 위해 8명의 실천 전공 사

12)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실천 전공 교수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논문의 경향 분석은 사회복지실천연구와 관련하여 발현된, 즉 드러난 현상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해석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 전공 교수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발현된’ 현상에 대한 ‘내재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특정 질적연구의 전통이 아닌 개별심층인터뷰에 기초한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실천경향분석에서 제시된 주제들, 예컨대, 연구주제, 연구방법, 학제성과 협업성 등의 범주 하에 질문하기 보다는 ‘현재 사회복지실천연구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상, 경향성,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등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인식에 관해 인터뷰하였고, 이를 지속적 비교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회복지학과 교수를 대면 및 전화를 활용하여 개별 인터뷰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³⁾. 실천전공교수들은 현재 사회복지실천연구의 위치가 경계, 위기, 그리고 혼돈 사이에 선 것으로 보고 있었다.

1) 경계에 서 있는 실천 연구

(1) 연구 환경: 무력감과 타협 사이, 연구실적 압박

실천연구자들은 연구 환경의 문제가 실천연구의 질을 저하시키는 한 원인임을 제시하였다. 대학은 변화하고 있다. 교수들은 많은 학교 행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업과 행정에 내몰리며, 정작 연구자로서의 에너지 투입은 쉽지 않은 현실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연구업적으로 교수를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실천연구자들은 연구의 질 담보보다는 일정 정도의 양을 채워내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하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연구자를 희망하지만 이러한 현실적 지점에서 연구자들은 무력감을 경험하기도 하며, 때로는 타협으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의 경직성도 문제예요, 고급방법론을 쓰고, 프로그램 효과성 같은 것으로 논문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공이 많이 들고, 비교집단도 있어야 하고, 유의하지 않게 나올 수도 있고, 학계도 이런 것을 격려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고급방법론을 지향하니까 현장에서 지향하는 연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시간이 많이 드니까 시간도 내야하고 경험도 있어야 하니까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일 수 없으니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를 하지 못하죠, 학술지도 그런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요, 질적연구도 에너지와 시간 소비가 많다는 측면에서는 마찬가지로이죠(K5).

실천연구들이 현장과 소통하려면,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환경에서 제대로 된 실천연구를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였다.

(2) 연구자: 섬과 섬 사이, 소통의 제한성

실천연구자들은 현재 사회복지학에 존재하는 소통의 제한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과 실천 사이, 현장과 학자 사이, 분야와 분야 사이 소통의 간극은 매우 크고 다양한 것으로 이러한 간극은 마치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은 섬으로 비유되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자마다 현장과의 소통에 대한 인식이 다름이 발견되었다. 일부 연구자는 자문 등의 활동을 현장과의 원활한 교류로 보는 반면,

13) 8명의 연구 참여자는 직위별로는 교수 1명, 부교수 6명, 조교수 1명이었으며, 성별은 남 1명, 여 7명, 지역은 서울 3명, 경기 1명, 강원 1명, 전북 1명, 경상 1명, 충청 1명 등이었다. 본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현장(실천)경험이 있는 4년제 대학의 사회복지실천전공 교수이었다. 자료수집은 대면 및 전화를 활용하여 개별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시에는 '현재 사회복지실천관련 연구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얘기해주세요 등의 비구조화된 질문으로 시작하여 실천연구와 관련된 현상이해를 촉진하는 다양한 질문을 활용하였다.

다른 연구자는 현장의 발전에 기여하는 학술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까지를 소통으로 보기도 하였다. 이는 각자 자신의 연구영역과 활동 범주에서 인식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학자들 사이의 소통부재를 예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 연구자는 정책전공자들이 임상을 너무 작게 규정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임상을 너무 미시적으로 보는 그 경향성이 바로 정책과 실천을 매우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학자들은 전공분야, 정책과 임상전공임을 구분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끔은 정책과 임상 구분 자체가 작위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현장과 이론의 갭을 크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임상을 너무 작게, 너무 미시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듯한데, 정책전공자들이, 서로 잘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현장을 모르고 정책연구를 하는 것의 문제 아닌가요? 미시, 거시, 분야를 구분하려는 경향도 마찬가지로요. 실제로, 분야도 딱 나누어지지 않고, 현장은 서로 섞여 있어요. 노인과 장애, 정신건강 등등... (k4)

(3) 전공: 실천과 정책 사이, 모호한 경계

한국의 실천연구가 갖는 정체성은 무엇인가? 실천연구자들은 정책과 실천의 경계가 모호함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모호성은 사회복지의 연구대상인 인간과 사회의 속성 그 자체가 미시 대 중시 혹은 거시로 구분하기 어려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였다. 예컨대 현장 중심으로 연구하다보면, 필연적으로 관련된 제도나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제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천연구의 본래 목적이 혼돈스러운 양상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임상실천연구의 목적은 현장과의 소통인데, 방법론이 너무 어려워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현장을 얘기하는 질적연구는 정책 등에 인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현장에 환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상실천연구의 목적이 현장과 괴리되어 있는 게 쟁 문제예요. 교수들도 연구로 평가받고 연구 환경은 압박하고, 그러다보니 연구자의 인식, 태도 등에 대한 학문공동체에서의 기본적 합의가 없어요. 연구가 개인적 목적으로 수행되다보니, 연구자체도 어렵고, 논문이 너무 어려워요. 논문의 기능이 소통인데, 너무 방법도 어렵고 읽는 사람도 없고, 질적연구는 인용도 안 되고요.(k6).

2) 위기에 직면한 실천연구

(1) 지향성의 부재: 사회복지 가치와 패러다임의 상실

실천연구자들은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많으나 사회복지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논의는 적은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즉, 사회복지의 근간, 뿌리에 대한 얘기 없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만 있다는 것이다. 응용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답론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영역에서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없어요,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많으나 서비스가 사회복지자인가요? 사회복지자를 통해서 가져가야 하는 가치와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사회복지적 접근은 무엇인가? 뿌리에 대한 얘기 없이 앗두잉에 대한 얘기만 있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없어요, 00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집요하게 파는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K8).

(2) 연구결과 재검증의 결어: 한국적 이론구축 부족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천연구의 부재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제기하였다. 이미 선행연구들에서도 재검증의 결어에 대해 비판받았던 지점이다(홍경준, 2002). 이는 후속연구의 부재를 통해 나타나며, 따라서 과연 한국적 토착화는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을 얘기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1년 단위 연구성과 그리고 빨리 빠리라는 문화적 양상이 진정한 효과를 보고자 하는 연구를 할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는 연구결과가 모이는 자산을 만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적 이론 구축에 매우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의 진정한 효과가 연구되고 있는 것 맞나요? 한국은 회계단위가 1년으로 성과연구를 하기 어려운 연구 구조의 문제가 있어요.(중략) 연구자 측면에서, 제일 답답한 게 프로그램 평가예요. 프로그램 평가는 기관 상황, 연구프로젝트에서는 펀드를 따가지고 오면 프로그램 돌리고 그 프로그램이 성과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1회계 연도에 이것을 보여주어야 하니까 문제죠.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현상은 단기간에 변화하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데, 그 때까지 시간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미국은 짧게는 3년, 5년도 많아요, (중략) 한국은 그렇지 못하고 1년 안에 보여줘야 하니까, 현장이나 연구펀드도 연구기간을 매우 짧게 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중략) 우리는 1년에 결과물을 내야 하니, 있었던 것을 기관에 제공해야 하므로, 실패보고를 못하고, 항상 실패연구와 대응을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모두 넣잖아요, 그러니 구체적인 전략의 효과성을 검증하지 못하고, 연구는 연구대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따로 노는 거죠(k8).

한편으로는 학술지는 많으나, 그 성격이 모호하고 지지적이지 않은 연구풍토도 한국적 지식 산출에 제한점으로 작용함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는 모든 저널의 성격이 없어요, 저널 성격이 모호한 게 큰 문제죠, 그리고 연구자의 연구풍토가 지지적이지 않아서, 젊은 학자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은 쓸 수가 없어요(k4).

(3) 제한적인 앗: '공부'로 이해하는 사회복지실천현장

실천연구자들이 정말 현장을 아는가? 이러한 문제제기는 임상경험이 많은 교수들로부터 제기된 것으로 '공부'로 아는 실천 현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정작 실천연구자들의 경험치가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평가하는 실천연구를 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되

었다. 이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주저되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연구자들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실행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천연구자들이 정작 경험치가 부족한 것 같아요. 공부로만 현장을 아는 것, 그게 켈 문제지요(k3)
 제 생각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돌릴 수 있는 교수도 많지 않은 게 우리 현실 아닌가요?(k5)

(4) 나는 그저 연구자: 사회적 책임성과 정체성 부족

한 연구자는 연구에 대한 주인의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에 대해 비판해야 함을 제기하였다. 상당수 연구자들이 '나는 연구자일 뿐' 그 결과가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않고 제도적, 실천적 제언들을 쏟아내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는 실천연구자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정체감과 사회적 책임성이 뚜렷하지 않은 현실적 이슈를 제기한 것이다. 또한 실천연구자가 현장을 매개하는 기능이 있는데, 교수로서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과연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 이로 인한 현장에 대한 책임성은 부재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복지이슈가 너무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사회복지학과와 현장을 매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교수로서 연구자로서의 아이덴티티만 남고, 사회가 주목하는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고, 비판받아야지요(k7).

3) 혼돈 속 실천연구

(1) 연구방법론에 얽매임 : 표류하는 연구목적

실천연구자들이 가장 먼저 제시하는 문제는 연구방법론에의 과도한 집착이었다. 예컨대, 고급통계나 다른 연구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연구 방법들에 몰두하다보니, 때로는 연구주제나 내용보다도 참신한 연구방법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는 것 같은 느낌마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연구자 뿐 아니라 논문 심사자들에게도 공존하는 현상임이 제기되었다. 때로 실천연구자들은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해보면, 연구방법이 너무 간단하거나 참신하지 않다는 이유로 탈락함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연구업적의 압박을 받는 신진학자들에게 새로운 연구방법을 찾게 되는 이유로 작용하기도 했다.

고급통계에 급급한 게 제일 문제죠. 심사자들의 문제구요. 참신하지 않다. 연구방법이 너무 간단하다. 이런 것으로 탈락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통계전문가인가요? 참신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주제로 수백편이 나와야 하는데, 계속 새로워야 한다니... 한편만 나와

도, 그러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가 위축되죠. 그러니 현란한 고급방법, 새로운 연구방법이 없나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실천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연구방법론 배우러 다니기에도 너무 바쁘고, 어떻게 현란하게 보일까 고급스럽게 보일까를 더 고민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 도움이 되는 연구보다는...(k1)

연구방법이 앞서다보니, 조사하기 쉬운 대상이 먼저 결정되고 연구주제와 범위가 그 후에 결정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초등학교 저학년에 관찰되어야 하는 현상이나 조사가 어려우니 고학년에 조사하고 연구할 수밖에 없는...(k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상들이 단순히 연구방법론에의 매몰 그 자체가 아니라 실천연구자, 우리의 학문 풍토 등 연구에 대한 인식의 문제임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김웅진(1996: 9; 김연옥, 1998에서 재인용)은 '특정한 방법론에의 집착은 문제의식의 생성을 가로막음으로서 생산되는 지식의 내역과 구조를 고착'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 최근 몇 년간 사회복지실천연구에 나타나는 연구방법론에의 과도한 집착은 연구목적의 표류로 나타나며, 연구라는 본래 목적의 주객이 전도되는 양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흉내 내는 연구들: 부정확한 해석의 오류

연구방법들에 집중하다보니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충분히 알지 못하고 적용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이를 한 연구자는 흉내 내는 연구들이 증가하여 일부 연구들은 해석이 틀린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은 실제 현상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고, 독자로 하여금 부적절한 적용을 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학 연구의 질적 저하 및 현장 적용에서의 오해를 가져오는 한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질적연구에서도 지적되었으며, 이를 집적거리는 연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고급방법론은 사용하되 해석은 명확히 않은데서 발생하는 문제가 크죠. 저는 해석을 이렇게 할 거면 고급통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함의가 없죠. 정확한 이해 없는 고급통계로 쏟아지는 결과들, 종단연구를 통해 변화를 체크했는데... 정확한 해석 없이 잘못된 함의를 써버리는 거예요. 방법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용어로 쉽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흉내 내는 연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k4)

질적으로 준비가 안 된 연구자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죠. 파일럿으로 해 본 연구들은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그것들이 모두 학술지에 연구로 나와요. 저는 이런 것을 신기한 연구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직 안 쓴 주제를 쓴 집적거리는 연구들이 많아서. 질적연구들이 오히려만 확장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k8).

(3) 실종된 함의: 과도한 추상성

실천연구자들은 고급통계 등 연구방법에 집중되다보니, 학술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실천적, 즉 현장에는 함의를 찾기 어려운 연구들이 많아지는 경향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학자들마다 느끼는 심각성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나치게 작은 변인들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그것이 실

천과 연동하지 않을 때, 이 연구는 허공을 맴도는 연구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위키라면 현장과의 괴리성이 아닌지, 방법론이 무엇이든 간에 현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들이 많죠, 생각해보면 부끄럽죠, 내가하는 연구는 도움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k5)

실천연구자들이 허공 때리는 연구들을 많이 하죠, 현장에 도움이 안 되고, 와 닿지 않는 연구들, 저는 현장에 민감성이 떨어지는 연구자들이 제일 문제라고 봐요, 가끔은 말장난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k1)

이러한 함의의 실증은 연구방법만이 남는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추상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이는 어려운 글이 되어 현장에 환류 되지 못하는 부정적 효과로 나타났다.

5. 논의 및 제언

얼마 전 교수신문(2015.4.16)에서는 대학교수로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정체성에 대한 조사가 발표되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식인의 죽음', '대학은 죽었다'와 같은 사회적 시선에 대해 70.3%의 교수가 '그렇다'고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동일한 질문에 대한 조사에서는 57.9%였으나, 2015년 현재 12.4%나 증가한 것이다. 30대(60.0%)나 60대(67.9%)에 비해 한참 대학이나 학계에서 활동할 연령대인 40대(73.5%), 50대(70.2%) 교수가 더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이러한 현상은 교수사회의 위기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환경이 연구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사회복지학과 관련된 연구 환경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야말로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상황에 압도되어 머무를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합해 나아갈 것인가?

위기의 다른 면에 기회가 있다. 위기는 추락도 비상도 가능하게 하는 창구이다. 지난 17여년의 세월 동안 실천연구는 위에서 제기되는 위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실천연구가 가진 기회의 측면에 대해 몇 가지 지점을 논의하고자 한다.¹⁵⁾ 첫째, 연구진(pool)의 확대이다. 앞서 기술한대로 그동안 사회복지학과와 양적 성장은 괄목할만한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 이면에는 질적 담보에 대한 논란이 있겠지만, 연구진 풀의 확대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학회가 증가하고 있고, 다수의 학술지가 발간되고 있으며, 교수들의 연구업적에 대한 부담감은 다른 한편으로 학술논문의 양적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실천과 관련된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한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둘째, 최근 사회복지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에의 집중 현상은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역량

14) 교수신문, 2015, “창간 23주년 기념 설문조사: 지금 대학교수로 살아간다는 것”,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30758>

15) 기회의 측면에서 사회복지실천연구에 대한 논의는 사회복지실천전공 교수들과의 인터뷰 및 사회복지학 논문의 경향 분석에 기반을 두어 연구자가 제시한 것이다.

의 향상이라는 유익한 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위의 연구결과 분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고급통계방법의 활용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질적연구의 성장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의 일환으로 2006년 질적연구를 중심으로 한 학회가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양적, 질적연구방법이 실천연구에 활용되고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학계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실천 현장에도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석·박사과정을 마친 전문가들의 현장진출, 그리고 학계와 현장의 소통 강화, 효과성 검증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 임팩트 향상에 대한 현장의 기대 등이 이러한 현상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장과 학계가 함께 할 수 있는 도대가 마련되는 점에서 우리의 또 다른 자산으로 평가할만하다.

셋째, 사회복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도 긍정적 요소 중 하나이다. 다양한 복지재단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는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산학협력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연구비가 없어서 좋은 연구를 할 수 없기 보다는 좋은 연구주제라면, 연구자의 지속적인 의지가 있다면, 시도해볼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제한적이지만 늘어나고 있다. 관련하여 연구주제도 다양화되고 있다. 지난 17여 년 동안 사회복지에는 다양한 주제를 학문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연구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세월호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직면하여 재난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 그것이다. 시류에 편승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도 가능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학문적 차원에서 사회현상에 반응하는 발전적 모습 중 하나라도 인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의 성숙도, 지속성 등은 향후 지켜볼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즉 연구대상에 대한 인식 변화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의 대상자로서만 존재하던 이용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인식이 일부이지만 변화되면서, 보다 현장 지향적인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당사자주의로 표방되는 장애인복지의 이념적 지향은 연구에서도 당사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적 접근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있는 실천연구의 현재의 맥락이 단순히 위기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비록 난간에서의 위태로움을 간직하고는 있지만, 사회복지에는 그동안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과 동력을 동시에 키워 온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사회복지학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세 측면에서 변화하는 사회적, 학문적, 실천적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1) 연구 환경 변화에의 대응

한국사회의 '빨리빨리' 문화는 대학 내·외의 연구 환경에도 확산되고 있다. 필자는 적어도 연구 환경이 요동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역동적인 연구 환경에서 실천연구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연구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이 있는가에 대해 자성적 고찰을 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IRB와 관련된 연구윤리의 강조는 실천연구에 있어서도 여러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글을 쓸 때, 그리고 여타의 많은 상황에서 앞으로도 연구윤리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

이다. 따라서 신규 실천연구자들을 학교에서 배출할 때, 사회적 책임성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은 단순히 연구방법을 습득한 '연구하는 기술자'를 배출하지 않아야 한다. 연구에 임하는 태도와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 하나의 연구가, 한 줄의 글이 가질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파급효과를 무겁게 인식하며 신중하고 엄격하게 연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실천연구자들은 연구자의 인식을 굳건히 하는 것 못지않게 교육자로서 후학을 양성할 때, 연구에 대한 신중한 태도와 사회적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대학은 교수에게 많은 연구실적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실적에는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뿐 아니라 암묵적으로 많은 수의 연구라는 양적 측면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신진학자들이 받는 압박감은 더욱 크다. 이러한 환경에 떠밀려 갈 것인가? 무엇인가 개선점을 모색할 것인가? 매우 어려운 일임은 분명하다. 향후 우리 스스로 양으로만 평가되지 않는 질적 우수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실천연구에서 '좋은 연구란 무엇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과 도전, 그리고 이에 대한 지지적인 연구문화 구축 등도 고려될 수 있다.

둘째, 실천현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다. 현장은 달라지고 있다. 배우려고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학계와 협력하여 무엇인가를 시도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현장의 욕구와 양적 수요에 비해 교수들의 바쁜 상황과 현장과의 소통의지 부족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낳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학계 내에서 현장과 접목된 새로운 시도들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지지하고, 그러한 연구들이 학술지에 실릴 수 있도록 격려되는 연구문화가 조성된다면, 교수들도 좀 더 새로운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문화의 구축은 우리 연구자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탈 경계와 신 융합, 협력과 공존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다. 김연옥(1998: 90)은 다른 학문과의 의사소통,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작업이 매우 부진함을 제기하였다. 1998년 당시 교수나 연구원 등 학자 중심의 연구가 절대 다수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91.0%), 사회복지현장실무자의 참여도는 6.0%, 전공별로는 사회복지전공자가 압도적 다수 차지(96.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현장전문가는 8.6%로 나타나서 참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학문과의 소통 역시 미비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변화하는 연구 환경에서 한국적 특수성과 연구주체가 갖는 맥락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현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장전문가와와의 협력과 공존뿐 아니라 타학문과의 협력모색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2) 실천현장 변화에의 대응

사회복지는 실천학문이다. 그 중에서도 미시적, 실천연구는 현장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허무한 독백에 그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화려한 혹은 고급 연구방법을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의 적용성이 없다면 그 의미는 퇴색할 것이다. 실천현장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이 실천지혜를 찾아내고, 이론과 수많은 연구결과들과 접목하여 한국적 실천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은 연구자의 몫이다. 그리고 이러한

몹을 해내기 위해 연구자와 현장전문가의 함께 성장하는 협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본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적극적인 현장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실천현장은 변화하고 있다. 이용자도 사회복지사도 서비스를 주는 환경도 모두 변화하고 그 안에서 사회복지사들은 변화에의 적응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변화에 발맞추는 이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자가 진정 현장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한국적 토착화, 이론 등을 고민할 수 있는 것이다. 실천연구자는 현장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진지한 물음을 던져 봐야 한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공부로 아는 앎이 아닌, 현장에 대해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다. 현장을 알지 못하고, 실천연구의 함의와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연구자가 먼저 현장으로 소통을 위해 다가서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은 실천학자들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현장에 대한 이해, 이용자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지식과 공감감이 없다면, 실천 연구는 그저 연구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둘째, 한국적 실천연구의 이론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반성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실용학문인 사회복지학의 실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적실성이 있어야 한다(김연옥, 1998: 87). 학문의 적실성이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학문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 둘째 현장 중심적이어야 하며, 셋째, 나름의 논리와 언어, 방법론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김정근·김영기, 1996). 오래전부터 토착화는 너무 익숙한 용어 중 하나이다. 그래서인지 그 의미나 개념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의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최균은 이미 1995년에 한국사회복지학의 최우선 과제가 토착화라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여전히 이는 미완의 과제라고 평가된다. 토착화는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명명은 적절하고 올바른 것인가? 이러한 측면에서 학자들은 책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현장과 협력하여 가장 한국적인 것, 그 안에서 보편적인 고유성을 찾아내고, 이를 이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는 증거기반실천의 강조, 질적 평가의 확산 등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장 친화적 연구의 가능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누군가에게 '읽히는' 연구를 해야 한다. 왜 연구하는가? 실천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소통이고 적용이다. 실천연구가 현장에 환류 되기 위해서는 독자가 읽고 적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한다. 이미 오래 전에 Kirk(1976)는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구체적인 실천적 체언으로 바꾸어 주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Mutschler(1984)는 조사연구결과가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무 책임성, 즉 치료적 기준과 부합해야 하며,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지침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기한다. 김연옥(1994) 역시 개입을 통해 도벽 횡수가 줄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도 치료적 관점에서는 무의미할 수 있음을 연구자가 인식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현장에 환류 되는 연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의 욕구로부터 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과 소통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실행연구(action research)의 적용과 확산을 제안하고 싶다. 김미옥(2009: 199-201)은 실행연구의 유용성으로 연구과정 자체가 변화의 기제로 활용되는 점, 연구와 실천현장의 간극을 최소화시키는 점, 실천가의 역량을 단순한 전달자에서 개발자로 강화해 주는 점, 연구자에게 현장에 대한 뜨거움을 회복시켜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재 활용되는 수많은 연구방법

들이 현장 친화적인 내용과 형태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연구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넷째, 진정한 실천의 효과는 검증되고 있는가에 관해 살펴보아야 한다. 사회복지실천이 과연 효과적인가? 그 유명한 Fisher의 논쟁이 아니더라도, 실천적 개입이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검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프로그램 효과를 보는 연구들, 메타분석들, 질적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어 개입의 효과성을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척도들이 개발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 양적 혼합방법들이 효과성 검증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가?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사회복지가 인간과 사회변화를 지향한다면, 이것은 양이나 질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시간이라는 변인을 고려해야만 한다. 우리는 흔히 1년 단위의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몇 개월의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효과성을 규명한다. 그러나 때로 어떤 프로그램 혹은 개입의 목표들은 1년이라는 시간으로는 그 효과성을 규명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제대로 된 측정보다는 간소화된 혹은 현실타협적인 만족도 조사들이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변인을 고려하고, 기다림이라는 문화가 수용될 때, 진정한 실천의 효과는 검증되고, 이는 한국적 이론구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에 대한 기다림의 문화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현재보다 종단연구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3) 한국적 사회복지학 재구성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는 응용학문이자 실천학문이다. 이는 사회복지학의 고유성이다. 그러나 응용학문이라는 이유로 나타난,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응용학문이기 때문에 더욱 본질을 성찰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점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담론은 존재하는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사회복지실천연구는 놀랄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많은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학술지의 증가, 학회의 증가, 그리고 신진연구인력이 확장되고 있다. 연구방법론의 강조 역시 득과 실이 공존하고 있다. 고급통계를 사용하는 연구들 사이에서 현란한 변수들의 관계 규명과 화려한 수학적 글들은 분명 지식인의 그것처럼 화려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연구들이 다수인 것도 사실이다. 체계적인 것 같지만,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없는 연구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패러다임, 담론에 대해 다시 질문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담론은 우리의 나아갈 지향점을 제시해주고, 이는 단순히 서비스에 대한 논의에 머무는 우리의 얇은 지식의 세계로부터 보다 더 근본적인 삶의 세계로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의 얼굴이 존재하는 생동감 있는 연구로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조은(2012)은 '글쓰기 이론이란 한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론'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실천연구들은 한국사회의 담론에 조용하는 실천연구의 담론은 무엇일지에 대해 보다 깊게 탐색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논의의 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맥락 안에서 현상은 이해되고 있는가? 에 대해 질문해 보아야 한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나 사회복지실천론을 가르칠 때 환경 속의 인간을 보라는 PIE접근은 매우 강조되는 것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정작 연구에서는 횡단적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 맥락이 사라진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변인들로의 과도한 추상성에 집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질적연구에서도 분절된 연구결과들이 산출되고 있다. 시간의 전후, 사회의 다양한 현상과의 접점, 이슈와 이슈 사이, 거시와 미시 등 그 현상이 처해있는 맥락 안에서 현상은 이해되고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비로소 가능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단순히 수많은 연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맥락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상에 대한 이해는 확대되고, 근본적 원인이 밝혀지면서 그야말로 사회복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제언과 함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에 '사람의 얼굴'이 살아있는가? 에 관한 것이다. 신영복(2015: 410-412)은 '사람의 얼굴'이 자기의 사상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라고 하였다. 그는 자기가 분명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언설 속에 무의식중에 녹아 들어가는 그러한 정신적 연원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를 연상세계라고 명명했고, 자신의 일상적 개념의 연상세계가 매우 관념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예컨대, 그에게 빈곤은 앵겔지수가 연상된다는 것이다. 이를 메마른 이론과 개념으로 뒷받침되는 생각이란 얼마나 창백하고 비정한 것인가라고 반성하고 있다. 그는 실업이나 빈곤이란 단어에서는 이론이나 개념에 앞서 실업자와 가난한 사람이 먼저 연상되어야 마땅하며, 인간에 대한 애정이 사상(捨象)된 사상(思想)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좋은 실천연구란 무엇일까? 필자는 아마도 사람의 얼굴이 연상되는 그런 연구라면, 연구대상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그런 연구라면, 좋은 연구로서의 출발선에 선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특히, 이 지점이 실천연구의 고유성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글이 글로 끝나지 않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여운이 남는 실천연구가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문공동체의 다양성과 개방성에 대한 사색이 필요하다. 최근 이는 우리 사회의 화두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 화두이기만 하겠는가? 우리 연구에서도 이러한 다양성과 개방성이 허용되어야 한다. 특히 진보적 연구, 새로운 시도들의 경우, 다소 학술적 엄격성이 적더라도 어딘가 출판되어 건전한 논쟁이 되고, 이론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연구 공동체 문화가 필요하다. 실험적 시도가 허용되는 연구문화 하에서, 한국적 이론구축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비판과 논쟁을 통해 연구자에게 지속적인 학문적 도전을 줄 수 있는 장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철희·김미옥, 2003,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과 고찰: 질적연구방법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논의”, 『한국사회복지학』, 55: 55-81.
- 공계순·서인해, 2006, “증거기반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이해와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1: 77-102.
- 교수신문, 2015, “창간 23주년 기념 설문조사: 지금 대학교수로 살아간다는 것”, 2015년 4월 16일.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30758>
- 김미옥, 2007, “한국 사회복지학에서의 질적 연구 경험에 관한 연구: 엄격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4): 163-189.
- 김미옥, 2009, “사회복지학에서의 실행연구(Action research) 적용과 유용성”, 『한국사회복지학』, 61(3): 179-204
- 김연옥, 1994, “사회사업가의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와 활동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5호: 210-224
- 김연옥, 1998, “우리나라 사회복지학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에 실린 경험분석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36호:1-20
- 김유진, 2007, “근거중심실천 소개: 근거중심사회복지실천의 필요성과 유의성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6: 22-47
- 김정근·김영기, 1996,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김정은 편,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 아카데미, 13-24.
- 서인해·공계순, 2014, “사회복지프로그램 차원의 증거기반 활동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연구』, 45(4): 55-87
- 신영복, 2015, 『담론』, 서울: 돌베개
- 양옥경, 2000, “한국 임상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2: 225-253
- 양옥경·김정진·서미경·김미옥·김소희, 2010, 『사회복지실천론 개정4판』, 광주:나남출판
- 오정수, 2002, “한국 사회복지학계 연구방법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상황과 복지』, 13호 12: 33-46
- 이상균, 2000,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 집단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0: 131-156
- 이혜경, 1993, “사회변동과 사회복지교과과정 개발의 방향”, 『한국사회사업(복지)대학협의회 연찬회 자료집』, 45-58.
- 장연진·정선옥, 2014,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 질적 평가연구논문 경향 분석”, 『사회복지연구』, 45(4): 325-356
- 조은, 2012, 『사당동 더하기 25: 가난에 대한 스물다섯해의 기록』,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최균, 1995,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의 과제”, 『1995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1-44.
- 홍경준, 1998,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방법의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홍경준, 2002, “한국 사회복지학계 연구방법론의 동향”, 『상황과 복지』 13호, 12: 13-32
- 황성철, 1998, “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과 미국 사회사업의 발전: 임상적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4: 215-245

- Aos, S., Muller, M., and Drake, E., 2006, "Evidence-based public policy options to reduce crime and criminal justice costs: Implications in Washington State", *Victims and Offenders*, 4: 170-196.
- Bumharger, B. K., and Perkins, D. F., 2008, "After randomized trials: Issues related to the dissemination of evidence-based intervention", *Journal of Children's Service*, 3: 55-64.
- Fischer, J., 1973, "Is casework effective: A resizes", *Social Work*, 18: 5-20.
- Kirk, S. M., Osmalov, M. J., and Fisher, J., 1976, "Social workers' involvement in research", *Social Work*, 21: 121-124.
- Kumpfer, K., Alvarado, R., and Smith, P., 2003, "Dissemination of research-based family interventions for the prevention of substance abuse", 75-119, in *Handbook of Drug Abuse Prevention*, edited by Sloboda, Z., and Bukoski, W. J.,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 Mutschler, E., 1984, Evaluating practice: A study of research utilization by practitioners, *Social Work*, 30: 332-337.
- Reid, W. J. & Hanrahan, P. 1982, Recent evaluation of social work: ground for optimism, *Social Work*, 27(4): 328-340
- Wood, M., 1978, Casework effectiveness: a new look at research evidence, *Social Work*, 23(6): 437-459

A Critical Analysis on Social Work Practice Researches in Korea

Kim, Mio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earch articles on social work practice and discuss tasks of social work practice research in broadening and deepening social welfare knowledge body in Korea. First, this paper arranges critical discussion and results on social work practice research since the dawn of history in Korean social welfare research. Second, this paper examines 874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from the volume one in 1998 to the volume 66(4) in 2014. The appearance rate of social work practice research was 16.6%(145 articles), and empirical research in relation to social work practice was 40.5%(363 articles). Among 145 articles, 8.6% were practitioners, and the rest of them were in the position of professors. In addition, 26.2% were researches on program effectiveness, and 29.0% were researches on social worker. Third, this paper was interviewed 8 professors who majored social work practice. They evaluate the present states of social work practice research as positioning to boundary, crisis and confusion. Finally, this paper discusses the tasks of Korean social work practice research in order to more solidly develop the knowledge body of social work practice in Korea.

Key words: social work practice research, Korean social welfare research, research trends

[논문 접수일 : 15. 06. 14, 심사일 : 15. 07. 06, 게재 확정일 : 15. 11. 16]